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동하는 사람, 그리고 선교

안내

- 블로그에 링크를 걸어서 공개했다. 이 원고는 블로그 원고의 기초다.
-

Focusing on the Ministry for Diaspora Chinese in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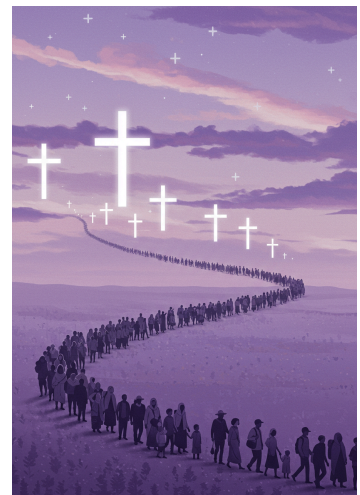
서론

| 이동하시는 하나님, 이동하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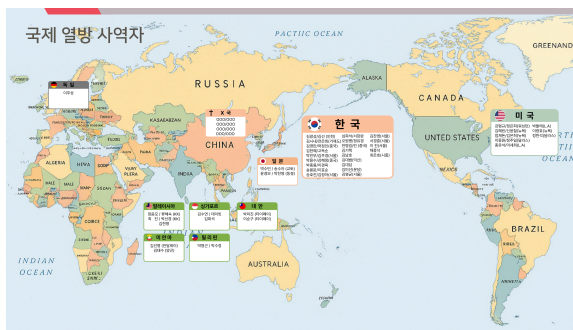
전 세계는 지금 이동하는 사람들로 가득하다. 고향과 고국을 떠나 전 세계에 흩어진 사람들이 2024년 중반에 이미 3억을 넘어섰다. ([International Data | Migration data portal](#)) 만약 디아스포라 인구를 모두 모아 하나의 국가를 만든다면, 인구 규모로 전 세계 4위에 해당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필자 역시 디아스포라 국가의 일원이었으며, 지금도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다. 지난 21년간 필자는 일본에서 이러한 이동 중에 있는 사람들을 섬겨왔다. 사이판 화인교회까지 기간을 합치면 23년이 넘어간다.

이곳에서 나누고자 하는 이야기는 주로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일본의 중국인 디아스포라들의 이야기, 그들의 간증과 선교에 관한 이야기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디아스포라 시대에 두신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라도 알아차릴 수 있기를 기도한다.

이 글은 사역의 지역과 성격에 따라 제1기, 제2기, 제3기, 제4기의 사역으로 나누어 구성했다. 각 꼭지마다 작은 제목을 달았으며, 꼭지 말미에는 디아스포라 선교에 참고할 만한 내용을 글상자에 담아 'Key'로 표시했다.



| 중국 베이징 그리고 사이판화인교회에서의 디아스포라 경험



북경 21세기 디아스포라 한인교회 출신 사역지 분포도

필자는 일본에서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으로 디아스포라 사역에 필요한 두 가지 소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첫 번째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중국 유학 경험이다. 필자는 대학에서 중문학을 전공하고 졸업 후 중국으로 베이징으로 가서 경영학 석사 과정을 공부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디아스포라의 삶, 신앙, 다이내믹한 디아스포라 교회를 체험하게 되었다.

디아스포라 유학생으로서의 삶은 개인적인 부침이 있었지만, 평범한 삶에서 선교적인 삶으로 변화되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특히 북경에서 필자는 21세기 한인교회라는 놀라운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를 경험했다. 그곳에서 평생의 선교 동역자들을 만났고, 선교하시는 하나님과 그분의 손길 아래 있는 디아스포라 교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얻게 되었다. 내 영혼이 그곳에서 선교적으로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적 비전을 보게 되었다. 이 경험은 후에 일본에서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짧은 디아스포라 유학생 경험과 디아스포라 한인 교회에서의 시간을 미래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셨다.



사이판 디아스포라 화인교회 10주년 특별 행물

두 번째로 중요한 경험은 2002년 사이판화인교회(Saipan Chinese Church 10years)에서 받은 사역 중국어 훈련이다. 사이판화인교회는 사이판 섬의 의류공장에서 일하는 중국 노동자들을 선교하기 위해 세워진 디아스포라 중국인교회였다. 당시 사이판의 디아스포라 중국 노동자는 3만여 명으로, 사이판 인구의 절반에 달했다. 필자는 1년간 사이판화인교회에서 협력선교사로 활동했다. 교회 차량 운행부터 예배 설교까지 다양한 사역에 참여하면서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복음에 대한 놀라운 반응과 생명의 변화를 목격할 수 있었다. 사이판화인교회는 설립 후 10여 년 동안 1,500여 명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이들 중 50여 명이 중국 가정교회의 풀타임 사역자로 성장했다.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디아스포라 가운데 역사하시는 복음의 위대함을 체험했다. 또한 함께 동역했던 이 만열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지 배울 수 있었다.

중국 베이징에서의 유학경험, 그리고 사이판화인교회에서의 협력선교사 경험은 후에 일본에서 디아스포라 중국인사역을 하는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

Key 디아스포라 교회는 무엇을 남기는가?

북경 21세기 한인교회는 약 30년 전 중국 베이징에 설립된 디아스포라 한인교회다. 나 역시 이 교회 출신이다. 교회는 지난 30년 동안 많은 변화를 겪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으며, 전성기에는 3,000여 명이 예배를 드렸으나 현재는 중국의 어려운 상황으로 200여 명만이 모여 예배하고 있다.

교회 규모는 시간에 따라 변했지만, 21세기 한인교회는 지난 30년간 300여 명의 헌신자들을 배출했다. 이들 대부분은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나 목사가 되었다. 위 지도는 이들이 흩어져 사역하고 있는 지역을 보여준다. 중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일본, 한국, 미국 등 전 세계 곳곳에 21세기 한인교회 출신 선교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동양의 격언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고 했는데, 디아스포라 교회는 "선교하는 사람들"을 남겼다. 우리가 현재 수행하고 있는 디아스포라 선교와 디아스포라 교회는 시간이 지난 후 무엇을 남기게 될까? [사도행전8:4]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우리의 사역이 지나간 자리에, 흩어진 선교사들을 남길 수 있기를 기도한다.

Key 디아스포라 사역 - Long & Total(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사이판화인교회의 목사는 사이판에서의 신앙생활을 마치고 중국으로 귀국한 이들을 위해 목회의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했다. 그는 자주 중국을 방문하여 귀국한 형제 자매들을 심방했다. 귀국자들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돌보고 섬기는 사역에 헌신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중국 내에 40여 곳의 가정교회와 60여 명의 풀타임 사역자가 세워졌으며, 해외 두 곳(요르단과 사이플러스)에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가 설립되었다. 이는 디아스포라 사역의 특징인 Long & Total(장기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잘 보여준다. 지금 눈앞의 사람을 섬기되, 이들의 귀국 이후를 염두에 두고 장기적이고 통합적으로 접근할 때 디아스포라 사역의 진정한 가치가 발휘된다.

Key 디아스포라 사역 - 추수의 계절(시기성)이 있는 사역

사이판화인교회는 2002년 당시 200여 명, 전성기에는 400여 명이 주일예배에 모였다. 그러나 현재는 약 20여 명만 모이고 있다. 2003년 당시 5-6개에 달했던 사이판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도 현재는 1-2개로 감소했다. 이는 무역환경 변화로 사이판에 있던 의류 공장들이 모두 철수했기 때문이다. 공장이 사라지자 공장 노동자였던 중국인들도 함께 떠났고, 이로 인해 사이판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은 침체기를 맞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디아스포라 사역의 중요한 특징인 '시기성'을 보여준다. 기회의 때가 주어졌을 때 신속하게 사역해야 하며, 지체하면 추수의 시기를 놓칠 수 있다.

제1기 사역(2004-2008, 삿포르)

삿포르 국제교회 중국어 예배부

1기 사역은 홋카이도 삿포르의 삿포르 국제교회에서 시작되었다. 이 교회는 OMF에서 개척했으며, 당시 OMF 선교사 이수구 목사님이 담당하고 계셨다. 교회는 주로 일본인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소수의 한국인과 영어권 성도들, 그리고 10여 명의 중국인 신자들이 함께 했다. 중국인들은 일본어가 서툴러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들을 중국어로 목양할 목회자가 필요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필자 부부는 2004년 5월 7일, 삿포르 국제교회의 정식 초청을 받아 협력선교사로 부임하게 되었다.

삿포르 국제교회는 OMF 선교사가 개척한 교회였고 여전히 OMF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필자는 한국의 Global Partners 소속 선교사였으나 OMF와 MOU를 맺고 Affiliate member로 활동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일본필드에 소속되었으나 후에는 DRM(현 Returnee Focus) Team에 속해 2018년까지 활동했다. 그 이후로는 친구관계로 교제를 나누고 있다.



2008년 홋카이도 화인 수양회

필자의 사역은 삿포로 국제교회의 중국어 예배부를 목양하는 일이었다. 목양은 예배에서 시작되었다. 2004년 12월부터 삿포로국제교회의 3부 예배로 중국어 예배가 시작되었고, 이를 통해 예배 공동체가 형성되고 성실한 예배참석자들을 중심으로 제자훈련이 이루어졌다.

삿포로 국제교회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게 모국어인 중국어로 진행되는 목양은 매우 중요했다. 일본이라는 타국에서 중국어로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교제하는 것은 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예배의 찬양을 통해 많은 이들이 감동을 받고 주님께 마음을 열었다. 모국어로 드리는 예배는 디아스포라 중국인 공동체에게 특별한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

외국 생활에서 느끼는 외로움, 의지할 곳 없는 불안함, 익숙한 관계와 문화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충격이 그들의 마음 발을 갈아놓았다. 이는 복음의 씨앗이 자랄 수 있는 좋은 토양을 준비하는 첫걸음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적극적으로 다가가 전도하고 교회로 초청했으며, 교회는 전도모임, 여름캠프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왔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다. 약 4년이 지났을 때는 중국어 예배에 120여 명 정도가 출석했다.

전쟁고아들의 신앙공동체

예배 공동체에 나오는 중국인들은 주로 잔류고아(殘留孤兒)와 유학생들이었다. 잔류고아란 2차 대전 당시 중국 동북지역에 남겨진 일본인들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들은 수십 년이 지난 후 일본에 귀국하여 홋카이도에 많이 정착했다. 이들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성령의 역사가 자주 나타났고, 평생 부모를 찾지 못한 고아의 삶을 살았던 이들이 구원받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영적인 가족을 얻게 되었다.



잔류고아들의 구원 역사에는 두 가지 주요 특징이 있었다. 첫째, 이들은 개인적인 신앙체험과 간증이 풍부했다. 둘째, 한 사람의 구원이 가족, 친척, 그리고 친구들의 구원으로 이어지는 전도의 도미노 현상이 일어났다.

이들 중 몇몇의 특별한 간증을 살펴보자. 리오 할아버지는 중국 하얼빈에서 귀국한 잔류고아 가족이다. 그는 50년 넘게 담배를 피워온 애연가였으나, 수양회에서 은혜를 받고 흡연의 심각성을 깨달아 금연을 위해 기도했다. 놀랍게도 그 자리에서 담배 냄새만 맡아도 역겨워지는 체질로 변했고, 그날 이후 다시는 담배를 피우지 않게 되었다. 이는 구원이 체질까지 바꾼 사례였다.

또 다른 사례로, '통통'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던 박사과정 유학생 부부의 아들이 백혈병 진단을 받았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이 소식에 교회 공동체는 함께 기도하며 아이의 치료 과정을 동행했다. 교회 식구들은 1년여 투병 기간 동안 돌아가며 식사와 간식을 준비해 환자와 가족을 위로했다. 마침내 이 어둡고 긴 터널을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걸어 나왔고, 아이는 치료되어 회복되었다.

천 할아버지는 뇌졸중으로 쓰러져 회복이 어려운 상태였다. 그러나 심방하여 함께 기도했을 때 기적처럼 몸이 회복되었고, 몇 주 후에는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을 되찾았다. 이런 개인적인 치유, 회복, 변화의 체험들은 공동체에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매년 8월 휴가 기간에 열린 '홋카이도 디아스포라 중국인 수양회'는 삿포로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형제자매들은 일 년 내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척,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정성을 다해 수양회에 초청했다. 때로는 중국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초청했다. 수양회 시작 몇 주 전에 중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을 일본으로 초청해 복음을 전하고 주일예배에 데려왔다. 그리고 여름 수양회에 함께 참석했다. 대부분 수양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몇 주간 남아 훈련을 받은 후 중국으로 귀국했다. 이들 중에는 중국에서 가정 모임을 시작한 이들도 있다.

일본교회(현지교회) 안의 신앙공동체

삿포로국제교회의 일본인 형제자매들은 수양회 아이들 프로그램을 위해 자원봉사자로 참여했다. 이러한 현지인들의 헌신적인 봉사는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 수양회뿐 아니라 교회 주일학교에서도 이들의 섬김이 중국인 2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 한번은 60대가 넘은 일본인 자매가 어린이 캠프에서 땀을 흘리며 중국 아이를 계속 안고 돌보는 모습에 필자는 큰 감동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민족과 국가의 장벽을 허물고 우리 가운데 넘쳐흘렀다.

유학생들은 삿포로에 비교적 짧은 기간만 머물렀다. 이 도시에는 일자리가 많지 않아 학생들이 언어과정이나 학위를 마치면 더 큰 도시나 모국으로 돌아가 취업했다. 3년이 지나면 교회 구성원의 50% 이상이 바뀌었다. 이러한 반복되는 이별은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쉽지 않았지만, 우리는 떠나는 이들이 각자의 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을 다하도록 축복하며 파송했다. 성경적 가치관으로 바라보면, 교인의 절반 이상을 3년 안에 선교사로 파송할 수 있다는 것은 디아스포라 교회만이 누리는 특별한 축복이었다.



삿포로 국제교회 중국어 예배 모임

이러한 파송은 오히려 공동체를 더욱 건강하고 활력 있게 만들었다. 교회는 졸업하는 학생들을 중국대륙과 대만, 도쿄와 오사카로 파송했고, 이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 지금도 선교 현장에서 가끔 그들을 다시 만나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자 보람이다.

삿포로 국제교회 중국어 예배부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핵심 리더들이 세워졌고, 국제교회라는 큰 틀 안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았다. 이제 자립한 교회가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선교사로서 사명에 더 충실하기 위해 자립한 사역지를 떠나 교회와 전도가 더 필요한 곳으로 향하게 되었다.

2008년 9월, 4년 4개월간의 1기 사역을 마치고 북경과 서울에서 1년간의 안식년을 시작했다. 쉼도 필요했지만, 더욱 절실했던 것은 선교사역에 관한 깊은 성찰이었다. 감사하게도 좋은 선배들과 환경 속에서 축복된 제1기 사역을 마무리했으나, 선교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들이 내 안에서 솟아났다. 선교지에서의 목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디아스포라 교회와 디아스포라 선교는 일반 교회나 선교와 무엇이 다른가? 어떻게 해야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중국으로 귀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날 수 있을까? 안식년 기간 동안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공부와 연구를 이어갔고, 다양한 만남을 통해 조금씩 제2기 사역의 방향을 잡아갈 수 있었다. 이렇게 다진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제2기 사역의 기초가 되었다.

Key 현지 교회내에서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의 의미는 무엇인가?

제1기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은 현지교회(일본교회) 안에서 중국어 예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샛포로 국제교회는 일본인이 중심이 된 국제교회로, 선교에 매우 헌신적이고 외국인들을 환영하는 교회였다. 이런 현지교회에서 디아스포라 사역을 할 때의 장점은 현지 교회가 자신의 일상 환경에서 직접 선교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교회의 형제자매들과 다양한 자원이 중국인 선교에 동참했고, 이를 통해 일본교회는 중국선교를 넘어 세계선교에 함께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문앞의 선교'다. 이러한 선교적 교회의 헌신은 전체 훗카이도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의 든든한 기반이 되었다.

Key 디아스포라 교회의 선교사 파송

디아스포라 교회의 교인들은 이동성이 높다. 학생은 졸업하면, 주재원은 임기를 마치면, 장사하는 사람은 새로운 사업을 찾아서 이동한다.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교인의 50%는 떠나고 새로운 사람들로 채워진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오고 가는 디아스포라 교회의 특성은 장기 목회를 힘들게 할 수 있다. 매번 잘 훈련된 사람들을 떠나 보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성령께서 다른 관점을 주셨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는 놀라운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는 기회다. 안디옥교회처럼(사도행전 13:1-3)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는 길이다. 불과 몇 년 안에 교인의 50% 이상을 파송할 수 있는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다.

Key 바울의 선교, 그리고 우리의 선교.

제1기 사역을 마치면서 몇 가지 선교사로서의 고민이 생겼다. 일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국으로 귀국한 사람들 중에 중국교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귀국자들의 신앙생활은 디아스포라 사역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디아스포라의 신앙이 단지 외국에 있을 때의 추억으로 끝난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다. 귀국 후에도 혼자 설 수 있고 오히려 빛과 소금이 되는 귀국자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또한 외국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디아스포라들이 믿음의 초기부터 자립적인 신앙인으로 자라나야 한다.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좋은 책을 만났다. 롤랜드 알렌의 "바울의 선교 & 우리의 선교"라는 책이었다. 이 책을 통해 선교지의 현지인들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대한 바울의 신뢰와 믿음, 위임을 배우게 되었다. 이 책의 내용은 내가 돕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 대한 나의 태도를 성숙시켜 주었다. 성령님의 역사를 신뢰하고, 이 믿음에 기초해서 현지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존중하고 신뢰했다. 이 기초적인 믿음은 제2기 사역의 중요한 틀이 되었다.

제2기 사역(2009-2015, 도쿄)

도쿄 닛포리 국제교회의 개척(tokyo-nic.com)

2009년 9월, 도쿄에 도착하여 제2기 사역을 시작했다. 당시 도쿄에는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안식년 동안 다져온 선교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있었다. 겨우 집을 구한 우리는 여행가방을 식탁 삼아 도쿄 생활을 시작했다.

삿포로에서는 일본 교회 안에서 사역했기에 정식으로 일본어 학교에 다니지 않았어도 충분한 일본어 환경 속에서 언어를 배울 수 있었다. 그러나 사역 언어가 중국어다 보니 현지어인 일본어에 대한 아쉬움이 늘 있었다. 그래서 도쿄에서는 필자와 아내가 정식으로 일본어 학교에 등록했다.

일본어 학원에 가보니 놀랍게도 같은 반 학생의 60-70%가 중국 유학생이었다. 주변이 온통 중국인이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과 친구가 되어 집으로 초청해 식사를 나눴다. 이 학생들을 중심으로 2010년 1월 10일 닛포리 국제교회의 첫 주일예배가 드려졌다. 우리의 일본어학교 친구들은 닛포리 국제교회의 초기 신자가 되었고, 이들 중에서 닛포리 교회의 첫 세례자가 나왔다. 하나님이 보내신 양은 늘 내 일상 주변에 있었던 것이다.

바울의 선교 & 우리의 선교의 실천

앞서 제1기 사역의 박스 글 Key에서 언급했듯이, 제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나는 성령을 온전히 의지하기로 결심했다. 특히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을 깊이 존중하고 신뢰했다. 이를 바탕으로 교회를 찾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신뢰하며, 필요할 때는 그들에게 과감하게 사역을 위임했다. 이러한 접근법은 제2기 사역부터 내 선교사 생활의 핵심 원칙이 되었다.

집에서 가정교회로 시작된 교회

도쿄 닛포리의 서민 동네 다세대 주택 2층 한켠에서 적은 무리가 모여 도쿄닛포리국제교회가 탄생했다. 이 작은 공간은 집이자 사무실이자 예배 공간이자 손님들의 게스트하우스였다. 이곳에 수많은 중국 학생들을 초청해 식사를 나눴다. 첫 해에만 7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식사했다. 복음은 밥과 함께 식탁에 올려졌고, 많은 이들이 음식과 사랑, 그리고 복음을 함께 받아들였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이 일을 뒤에서 돕는 분들도 보내주셨다. 주변에서 알게 된 일본의 한국 크리스천들이 선교에 써 달라며 쌀과 김치를 보내주셨다. 이들의 지원은 외롭게 개척하고 있던 우리에게 큰 격려와 힘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신 곳에 천사들도 함께 보내시어 힘을 더해 주시는 분이시다.



도쿄 닛포리 국제교회의 초창기 집에서 주일예배 드리는 모습

우리가 사는 집에서 교회를 시작한 것은 단순히 공간 비용을 절약하려는 경제적 이유만은 아니었다. 여기에는 제1기 사역과 안식년 기간의 고민과 공부를 통해 배운 몇 가지 중요한 선교적 의도가 담겨 있었다. 무신론 교육을 받고 자란 중국인들에게는 일반 가정이 예배당보다 더 편안하게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이다. 평생 한 번도 기독교를 접해보지 않은 수많은 중국인들에게 교회 예배당은 매우 낯선 곳이기 때문에, 먼저 집에서 가정교회 형식으로 개척을 시작했다. 집은 어디에나 누구에게 있으니 부담없이 오기 좋았다.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대부분 언젠가 본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이다. 이들이 귀국해서 만나게 되는 중국의 교회들은 가정교회다. 따라서 도쿄에서 가정교회를 경험함으로써 귀국 후 신앙생활 적응력을 높여줄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는 개척 초기 2년간 가정교회로 모였는데, 이는 디아스포라 선교의 10가지 특징 중 하나인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Long & Total) 돌봄에 부합하는 전략이었다.

초기 가정교회에서 자라난 형제자매들은 교회개척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교회는 가정에서 식사와 함께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공동체였기 때문이다. 이를 옆에서 지켜본 새신자들은 "이런 모임이라면 나도 할 수 있어!"라고 생각했다. 식사를 나누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지내는 것이 교회라면 자신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겼다. 실제로 중국으로 귀국해서 교회를 개척하는 이들이 생겨났다. 교회 개척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그러나 아쉽게도 2011년 가을, 상황의 변화와 건강 문제가 겹치면서 1년 8개월간 우리 집에서 진행했던 가정교회 형식의 모임이 마무리되었고, 교회는 외부에서 새로운 장소를 찾게 되었다. 처음에는 근처 디아스포라 한인교회의 예배공간을 함께 공유했다. 한인교회가 사용하지 않는 오후 늦은 시간을 이용해 주일예배를 드렸다. 이후 일본어학교 크리스천 이사장님의 호의로 일본어학교 교실을 일요일에만 빌려 사용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는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자력으로 마련했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지금의 멋진 예배당을 주셨다. 닛포리 교회는 개척 13년간 네 번의 이사를 거쳐 2022년 현재의 장소에 안착했다.

디아스포라 교회, 선교적 교회

도쿄에서 교회 예배공간을 구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외국인들의 종교 모임에 장소를 빌려주려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매번 기적처럼 하나님이 예배장소를 공급해 주심을 경험했고,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배장소는 결코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도쿄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과 이 공간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공유 공간'이었다.

그래서 비록 작은 공간이지만, 도쿄 닛포리 교회의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필요로 하는 단체,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빌려주었다.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위한 여러 모임들이 교회 공간을 사용해서 이루어졌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베트남어 예배와도 공간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 참여한 이들은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선교적(Missional)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여기서 '선교적이 되었다'는 것은 개인과 공동체 삶의 중심에 '선교'가 모든 결정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자리잡게 되었다는 의미다. 교회 예배공간을 사용할때, 우리는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실천하기 위해 우리 교회만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단체와 사람들과도 공간을 공유한다. 교회재정을 사용할 때도, 선교라는 핵심 가치를 고려했다. 이는 매우 작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도쿄 닛포리 국제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되었다.

2012년 5월, 첫 번째 교회 이사를 마치고 두 번째 예배공간을 얻은 후 새 예배당에서 전도집회가 열렸다. 이틀간 진행된 집회의 마지막 날에는 190여 명이 참석해 좁은 예배당이 가득 찼고, 많은 사람들이 서서 참여해야 했다. 이 집회를 계기로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향한 복음전도의 필요성에 공감한 사람들이 매월 기도모임을 시작했다. 이후 이 모임은 일본 화인 크리스천 센터(Japan Chinese Christian Center, 이하 JCC로 약칭)의 설립으로 발전했다.

JCC(Japan Chinese Christian center) 일본 기독교 중국인 센터의 시작

JCC(tokyo-jcc.com)는 지난 13년간 매월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 일본 선교와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모임을 이어오고 있다. JCC는 일본의 크리스천 디아스포라 중국인 연합

체로서 전도대회, 세미나, 제자훈련, 단기선교 등 다양한 활동을 주관해왔다. 지금도 JCC는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 크리스천들의 전도, 성장, 선교 참여를 위한 연합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JCC가 불신자들을 위해 개최한 첫 전도대회는 2013년에 열렸으며 3,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후 전도대회는 매년 두 차례씩 전국을 순회하며 진행되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까지의 기록만 보더라도 총 7,784명이 참석했고, 617명이 결신했다.

그리고 2024년 전도대회부터는 더욱 전도가 시급한 일본인 전도에 초점을 맞추어 디아스포라 중국인 전도에서 현지인인 일본인 전도로 방향을 전환했다. JCC는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과 세계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연결하는 교량이자, 일본선교와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를 잇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현재 87만 명에 이른다(2024년 통계자료). 그러나 이는 중국 여권 소지자만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대만,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기타 지역 출신의 화교 등을 포함하면 총 12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산된다. 코로나 이후 중국인들의 일본 이주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최신 중국인들의 일본이주 소식). 유학생, 투자 이민, 종교 이민 등 다양한 경로로 많은 중국인들이 일본으로 유입되고 있다.

일본에서 주일예배에 참석하는 디아스포라 중국인 크리스천은 전체 디아스포라 중국인 인구의 약 0.3%~0.5% 정도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중국교회와 평균 출석인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수치로, 일본의 전반적인 크리스천 비율과 유사한 수준이다. 이는 매우 낮은 비율의 크리스천 인구를 의미한다.

이처럼 낮은 비율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개인적으로는 일본 교회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본 전체에 원래 8,000여 개의 교회가 있었으나, 인구 노령화와 코로나로 인해 약 1,000여 개가 줄어 현재는 7,000여 개만 남아있다. 일본인구대비 일본 크리스천 비율은 천주교 포함 1%를 못 넘어가고 있다.



제1회 JCC 전도대회



JCC 전도대회 스태프들

반면, 일본의 중국교회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일본 전체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는 15년 전 42개에서 2025년 현재 117개로 증가했다(JCC에 등록된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 통계 참고). 그렇지만 일본의 전체 디아스포라 중국인구 대비 0.3%-0.5%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

다. JCC의 중요한 기도제목 중 하나는 일본에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가 400개까지 개척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체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인구 대비 약 4%의 복음화율 달성이 가능해진다. 그러면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미전도 종족 상태를 벗어나게 되고, 일본 선교와 세계선교를 위해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독자적인 역량을 갖추게 될 것이다. 교회개척은 일본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다.

JCC는 지난 13년간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위한 다양한 훈련프로그램과 선교운동의 플랫폼 역할을 했다. 해외의 인적자원과 일본 내의 필요를 효과적으로 연결했으며, Oversea Campus(海外校园)와 Logos Seminary(正道神学院)등과 협력하여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했다. 이를 통해 자녀교육, 부부관계, 직장선교, 단기선교 등 실질적인 훈련이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공동체에 뿌리를 내렸다. 2025년 현재 일본에는 디아스포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소 5개 이상의 신학교 과정이 정착하여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헌신자들이 교회 개척자로 훈련받고 파송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고 있다. JCC는 또한 홋카이도에서 오키나와에 이르는 전국적인 디아스포라 중국인 크리스천 네트워크 형성에 중추적 역할을 했다. 특히 태국, 대만, 일본 국내에서 연합으로 시작된 단기선교는 많은 장기 헌신자들을 배출하는 통로가 되었다. 이 과정은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부르심과 소망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인식하게 했다. 우리가 일본에 살게 되고 이곳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만난 것은 일본선교와 세계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단기선교 보고백서).

JCC 연합사역의 주요 성과 중 하나는 일본의 크리스천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서로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JCC의 모든 활동은 각 교회에서 자원한 형제자매들로 이루어진다. 다양한 집회, 세미나, 수양회, 전도대회 등을 통해 이러한 만남이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성도들은 자신의 교회를 넘어 다른 공동체에 속한 형제자매들과 교제하며 더 넓은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폭넓은 만남과 교제는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와 일본선교를 위한 탄탄한 기초가 되었다.

동아시아 기독교청년대회(동아시아대회 영상 리포트)

저는 한국인으로서 일본에 살며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를 하는 선교사다. 일본, 중국, 한국 세 나라의 접점에서 사역하고 있다. 이 세 나라는 역사적, 외교적으로 관계가 원만하지 않다. 서로 전쟁을 경험했고 현재까지도 많은 갈등이 존재한다. 그러나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는 예수님의 능력이(에베소서 2:14) 2011년부터 시작된 '동아시아 기독교청년대회'를 통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



2025 동아시아 기독교청년대회

매년 중국, 한국, 일본 세 나라의 기독교 청년 약 100명이 모여 3박 4일간 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이들은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게임하며, 아웃리치 활동을 통해 진정한 친구가 된다.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로 찬양하고, 매일 밤 서로의 나라를 위해 중보기도한다. 이 기도 시간에는 뜨거운 사랑과 용서, 축복이 넘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 청년들이 기쁘게 헌신하며 주님 앞에 나아오고 있다.(시편 110:3).

대회가 15년을 넘어서면서 비록 소수지만, 세 나라의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친구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선교에 동참하고 있다.역사적으로 갈등을 겪어온 중국, 일본, 한국의 기독교 청년들을 통해 작지만 새로운 평화의 가능성을 목격하고 있다.

Key 도시에서의 디아스포라 교회개혁

도시에서의 디아스포라 교회개혁은 몇 가지 점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도쿄와 같은 메가시티에서의 사역은 조금 다른 특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헌신적이어야 한다. 이런 점은 대도시나 소도시나 시골이나 동일하다. 그러나 대도시에서는 모임의 교통 접근성, 예배 장소의 적합성 등을 더욱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디아스포라 교회는 학업이나 임기를 마치면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 유출인구가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유입인구가 계속되지 않으면 교회는 쉽게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 새롭게 유입되는 사람들은 아직 헌신도가 높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 이미 교회에 오래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대중교통의 접근성, 식사 교제, 친절함, 외국생활 정착 등과 같은 사소한 것들이다.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Key 선교사와 목사는 무엇이 다른가

일본의 선교적 필요는 다른 나라와 크게 다르다.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사회가 발달해 있어 사회개발이나 빈민구제 사역의 필요성은 적다. 그러나 교회 목회에 대한 필요는 매우 크다. 일본 기독교 전체가 사역자 부족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후임 목회자를 구하지 못한 교회가 "무목교회(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무목교회(無牧教會)"는 전체 일본교회 8,000개 중 300개에 달하며, 한 목회자가 두 교회 이상을 책임지는 "겸목교회(兼牧教會)"는 1,000개에 이른다. (무목교회 강의 자료) 따라서 일본에 가장 필요한 선교사역은 교회 목회다. 필자도 제1기 사역기간에는 교회 목회만 했다.

이렇게 선교사임에도 목회만 하다 보니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에 의문이 생겼다. 한국에서 목사로 사는 것과 일본에서 선교사로 사는 것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 제2기 사역을 시작하면서 조언을 구하기 위해 도쿄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 목회자들을 여러 명 만났다. 그들과 대화하면서 필자는 자신이 목회하는 목사이지만 동시에 선교로 부름받은 선교사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일반 목회자들의 관점과 선교사인 필자의 목회 관점은 확연히 달랐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자기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지 않았다. 필자는 전도에 특별히 능숙한 사람은 아니지만, 교회 밖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일본에서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0.3%에 불과하고 나머지 99.7%가 교회 밖에 있다. 이 절대다수의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선교사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필자는 교회도 더 많은 시간과 재정을 이 99.7%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고 믿는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더 깊은 선한 부담을 갖는 것이 선교라고 생각한다. 자신이 봉사하고 있는 교회에만 모든 것을 집중하려는 목회적 성향과 밖으로 향하는 선교적 성향은 이 지점에서 분명히 구별된다.

Key 800-400-200 Vision

800-400-200은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비전이자 기도제목이다. 이 비전은 구체적으로 800명의 교회 개척자를 양성하여 4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들에서 200명의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200명의 현장 선교사들 중에서 미래 중국교회의 선교 지도자들이 다수 배출되기를 기대한다.

중국교회가 본격적으로 세계선교에 참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잘 준비된 선교 리더십이다. 뛰어난 리더들이 중국교회의 세계선교를 더 효과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선교 리더들이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회에서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한다.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이 중요한 사명에 쓰임 받기를 기도한다.

케냐 안식년 기간(2015-2016, 케냐 나이로비)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와 비전

2015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필자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안식년을 보냈다. 이 기간 동안 OMF의 아프리카 팀에 합류하여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에 관한 리서치를 진행했다. 리서치 결과는 필자가 저술한 "한눈에 보는 디아스포라 선교"에 간략하게 정리해 실었다.

아프리카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교회 성장을 보이는 지역이다. 이곳에서 새롭게 부상하는 주요 디아스포라 그룹이 바로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다. 아프리카 교회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고, OMF는 아프리카 교회 내에 중국어 예배를 세우는 사역을 진행해 왔다. 중국의 아프리카 중시 정책과 일대일로 정책(一帶一路, One Belt One Road, **OBOR**)으로 서로의 관계가 긴밀해졌고, 이에 따라 많은 중국인들이 아프리카로 이주하게 되었다.



아프리카 나이로비 디아스포라 중국인 모임

현재 아프리카의 중국인 수는 약 200만 명으로 추정되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그러나 아프리카 전역의 중국인 교회는 40여 개에 불과하며, 케냐에는 단 4개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만 있다.(2015년 통계) 아프리카 중국인 사역은 아직 초기 단계로, 더 많은 사역자와 교회 개척이 시급히 필요한 상황이다.

아프리카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는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커지는 아프리카 교회와 고난과 핍박 속에서 부흥한 중국 교회가 협력할 수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MENA(Middle East & North Africa) 지역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중국인들과도 연계가 가능하다. 또한, 이들을 거점으로 중동에서 남하하는 이슬람 세력을 저지하고 기독교 선교를 북아프리카로 확장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따라서 아프리카 지역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선교하고 교회를 개척하며 선교사를 지속적으로 파견할 수 있는 단체나 센터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아프리카의 중국인 선교가 단순한 교회개척과 영혼구원을 넘어 북아프리카를 거쳐 중동지역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선교의 길이 좀 더 폭 넓게 열릴 수 있다.

아프리카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와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안식년 기간 동안 아프리카 케냐에서 리서치를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해외선교 참여를 위해서였다. 이들의 선교 참여는 장래 중국교회의 선교 지도자 양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그룹은 매우 젊고 헌신적이다. 해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중국 대륙의 중국인들보다 더 많은 타문화 경험과 선교 기회를 접한다. 필자는 하나님이 이러한 환경을 허락하신 이유가 우리에게 더 많은 선교적 책임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이 책임에 부응해야 한다. 특히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중국 교회들이 본격적으로 세계선교에 참여할 때, 그들에게 좋은 선교 지도자들을 공급할 책임이 있다. 더 많은 경험과 기회는 이런 책임과 상응한다. 그들은 선교에 적극 참여하고, 그 경험을 축적하여 중국 교회들이 더 효과적인 선교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교회가 향후 200명의 선교사를 해외 선교지에 파송하기를 기도하고 있다. 또한, 그들 가운데 영향력 있는 50명 이상의 현장 경험이 충분한 선교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제목이다.

Key "한 눈에 보는 디아스포라 선교(Book down here)" 책 집필과 출판

케냐에서 OMF Africa Team과 함께 행복한 교제를 나누며 소중한 안식년을 보냈다. 이 휴식 기간 동안 한 권의 책을 완성할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사역과 경험을 글로 정리하고 싶었고, 우리를 지지해 준 사람들에게 내 경험과 생각을 더 깊이 공유하고자 했다. 이 책은 디아스포라 선교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일본에서 진행 중인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을 소개한다.

처음에는 한국어로 집필했고, 이후 영어와 중국어로 번역되어 출판되었으며, 필요한 이들을 위해 PDF 버전도 무료로 제공했다. 평범한 선교사의 경험과 생각을 담은 이 책은 디아스포라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필요한 안내서가 되었다. 또한 같은 고민을 가진 사역자들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했다.

이 작은 책 한 권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고, 그중에는 내용에 감동받아 디아스포라 사역에 동참하게 된 이들도 있다. 선교사들이 자신의 사역과 경험을 글로 기록하여 나누기를 강력히 권한다. 글은 우리 사역을 모르는 이들과 연결하는 든든한 다리(Bridge)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까지 사역을 확장시켜주는 전령사 역할을 한다.

Key 중국교회와 아프리카교회의 협력과 선교

중국인들은 아프리카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일대일로 정책의 일환이자 전통적인 외교정책이기도 하다. 그 결과 많은 중국인들이 아프리카로 이주했고, 현재 아프리카 전역에 중국인들이 거주하고 있다. 아프리카는 세계기독교 성장을 이끄는 차세대 기독교의 중심지이다. 이런 아프리카 교회와 아시아에서 오랜 핍박을 이겨내고 부흥을 경험한 중국교회가 협력한다면, 새로운 선교 역량이 형성될 수 있다. 이를 통해 북아프리카와 중동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선교 루트를 개척할 수 있다. 이것이 아프리카 교회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의 또다른 의미라고 생각한다.

제3기 사역(2016-2025, 도쿄)

소중한 선교 동역자 리이징 자매와의 만남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실 때 돕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누가복음 8:3). 바울의 선교에도 많은 돕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 그중 비단장사 루디아는 유명한 동역자다(사도행전 16:14-15). 선교는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다. 거미줄처럼 연결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면서 진행된다. 선교 현장에는 하나님이 루디아와 같은 동역자들을 미리 준비해 두신다. 필자도 그런 귀한 동역자들을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만났다. 여기서는 그중에 특별한 한 분을 소개하고자 한다. 2016년 7월, 아프리카에서의 안식년을 마치고 도쿄로 귀임했다. 도쿄로 돌아온 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소중한 동역자 중 한 분이 리이징(Li YiJing) 자매다.



우리 가족은 도쿄에서 살 집을 구해야 했는데, 시간이 걸려 임시 거처가 필요했다. 그때 리이징 자매가 요코하마에 있는 자신의 집을 한 달간 빌려주었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 이분을 알게 되었다.

리이징 자매는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며 섬김의 마음이 깊은 사람이다. 그녀는 내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쓴 '한 눈에 보는 디아스포라 선교'를 읽었고, 우리와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게 두신 뜻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에 적극 동참했다. 자신이 가진 부동산을 교회의 예배당으로, 사역자들의 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숙소가 필요한 사람, 장소가 필요한 모임, 섬김이 필요한 사람, 일본을 찾는 많은 외부 손님들, 그녀는 일본의 큰 엄마가 되어 모든 이들을 환영하고 섬겨주었다. 지혜롭게 가장 선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도왔다.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은 리이징 자매에게 많은 빛을 지고 있다. 개인적으로도 이 분을 통해 많은 격려, 위로, 도움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한 일에 열심인 리이징 자매는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 자매처럼,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의 한 장에 기록될 귀한 자매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해 주시기를 기도한다.

형제, 자매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2016년 두 번째 안식년 동안 선교사가 부재했음에도 교회는 한 명의 현지인 사역자와 평신도 형제자매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성장했다. 선교사 리더십이 없는 상황에서도, 선교사 안에 역사하셨던 성령님은 현지인들 안에서 동일하게, 오히려 더 강력하게 역사하셨다. 개척의 중심이었던 선교사가 안식년으로 자리를 비우자, 주변 리더십에 있던 형제자매들이 중심 역할을 맡게 되었고, 교회의 핵심 리더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다. 이는 리더십 위임이 가져온 긍정적인 결과였다.



세례식, 매년 한 번은 4개의 교회가 함께 연합으로 세례식을 했다.

2017년 이후 교회는 급속히 성장했고, 예배 인원이 늘어나면서 주말에만 빌려 쓰던 예배 장소로는 불편할 정도로 좁아졌다. 그러자 교회의 형제자매들의 결단으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교회 전용 공간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 공간도 선교적 정신에 따라, 도쿄닛포리 국제교회만의 공간이 아닌, 선교적 공간으로 활용되어 다른 단체와 모임들에게도 개방되었다.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모임과 훈련, 베트남인 모임, 신학교 강의 등, 다양한 사역이 이 새로운 교회 공간에서 이루어졌다.

모두가 도쿄 닛포리 교회가 빌린 예배당을 단지 '우리만의 예배당'으로 여기지 않고, 일본 디아스포라 화인들과 세계선교를 위한 공간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언제든지 기쁘게 공간을 제공했다. 이러한 공간 나눔은 결과적으로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을 촉진했고, 교회도 이 흐름 속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사도행전20:35)이 우리 가운데 실현되었다. 주는 교회 공동체가 더 큰 축복 가운데 살게 되었다.

디아스포라 교회가 디아스포라 교회 개척을 지속하다.

도쿄 닛포리 국제교회는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특징을 고려해서 교회 개척과 성장 방향을 결정했다.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은 한 곳에 집중해서 살고 있지 않았다. 도쿄 전역에 흩어져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가 커지는 것보다는, 필요한 지역에 다수의 작은 교회를 지속적으로 개척하는 방향을 결정했다. 형제자매들도 이 선교적 방향성에 적극 동참했으며, 매번 교회 개척팀을 꾸릴 때 약 10명의 형제자매들이 개척에 지원하고 참여했다. 이는 당시 예배 인원의 10%가 기존 교회를 떠나는 것을 의미했다. 지불할 댓가가 컸다. 그렇지만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했고 우리에게 이 뜻에

순종하는 기쁨과 보람이 가득했다. 2019년에는 도쿄 서쪽 나리마스 지역에 베다니(Bethany) 예배당이 개척되었고, 2020년에는 도쿄 도심 한복판에 롯폰기(Roppongi) 예배당, 2021년에는 도쿄 북쪽 지역에 오지 총언탕(Chong En Tang)이 개척되었다.

지속적인 교회 개척은 교회 전체에 우산효과를 가져왔다. 개척을 나간 개척 팀 멤버들이 성장했고 예배당마다 저마다의 개척의 은혜가 생겼다. 각 예배당은 보냄 받은 지역에 자리 잡아 그곳에서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냈다. 우리는 도쿄 닛포리 국제교회의 우산 아래에서 각 예배당이 독립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했다. 교회의 전체 스태프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교제하고 의견을 나누었으며, 연 2회(세례식과 가을수양회) 4개 예배당이 연합모임을 가졌다. 이를 통해 적은 수의 개척 팀이 주변의 지지 가운데 개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러한 지지는 재정적 지원으로도 이어졌다. 모든 예배당의 헌금을 통합 관리하여 각 예배당이 수입에 상관없이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 시스템은 초기 개척시 발생하는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 이를 통해 개척 팀이 안정적으로 사역에 전념할 수 있었다. 사역자들은 소속 교회의 헌금액, 사역 연수, 직위와 무관하게 생활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받았기에 사역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었다. 모든 예배당은 각 예배당의 책임 사역자의 리더십하에 독립적인 목회를 수행한다.

각 예배당은 10명 전후의 개척 멤버와 한 명의 전임 헌신자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모든 예배당이 각자의 지역에서 평균 30-40여 명이 모이는 안정적인 교회로 자리 잡았다. 닛포리 예배당도 지속적인 개척 멤버 파송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주일 평균 180명이 모여 예배드리고 있다. 도쿄 닛포리 국제교회 전체로 보면, 한개의 교회, 4개의 예배당에 300여 명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했다.

도쿄 다니엘 국제학교의 탄생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의 가장 두드러진 인구 특성은 젊은 계층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다. 20대부터 40대까지가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며(30대 28%, 20대 27%, 40대 22%), 교회 구성원도 이와 유사하게 20-40대가 주류를 이룬다. 이로 인해 교회 내 아이들의 수가 많고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신자가 대다수인 일본 사회에서 "어떻게 자녀를 신앙으로 바르게 키울 수 있을까"는 목회자와 부모들의 공통된 고민이다. 주일예배 3-4시간만으로는 자녀들에게 신앙을 충분히 전수하기 어렵고, 특히 중고등학생이 되면 주말 학교 클럽 활동으로 인해 주일예배 참석조차도 어려워진다.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 교회에서 학교 설립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되었다. 필요성은 절실했으나 전문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시작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우연한 기회에 ACE(Accelerated Christian Education)의 기독교 학교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서 교회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다.



2025.2. TDIS 첫 졸업식

2019년 3월 도쿄 다니엘 국제학교(Tokyo Daniel International School, 이하 TDIS)가 개교했다. TDIS는 2025년 현재 24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올해 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학교를 통해 학생들의 영적 성장과 학업 능력이 향상되고, 이는 가정의 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았다. TDIS는 디아스포라 중국인 자녀들이 경직된 일본 사회에서 외국인으로서 겪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 사랑과 헌신으로 섬기는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아이들은 신앙과 실력을 갖추며 성장하고 있다. TDIS는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자녀교육과 다음세대 양성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 있다.

TDIS는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세계선교에 동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프리카와 남미 화교사회에서 학교는 핵심적인 공동체 공간이다. 이러한 지역에 신앙적이고 국제적인 학교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은 효과적인 선교전략이다. 목사나 선교사보다는 학교 설립자나 교사라는 명확한 신분으로 아프리카와 남미 화교사회에 접근한다면 더 많은 선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TDIS 설립과 운영 경험은 800-400-200 비전 중,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를 통한 200명의 해외 선교사 파송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다.

동아시아 신학교 일본 캠퍼스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에게는 "800-400-200"이라는 기도제목이 있다.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는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 가운데 800명의 교회 개척자를 양성하여, 40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200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는 비전이다. 물론 숫자 달성 자체가 목적은 아니다. 그러나 이렇게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에 두신 하나님의 뜻이 세계선교임을 믿기 때문이다.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이 일본선교와 세계선교의 교량이 되는 것에 대한 공동체적인 사명감이 있다.

이 800명의 교회 개척자들을 양성하는 데 필요한 핵심 훈련과정 중 하나가 바로 신학훈련이다. 최근 몇 년간 일본에서는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위한 신학훈련 과정이 4~5개 개설되었다. 동아시아 신학교 일본 캠퍼스도 그중 하나다. 2024년 3월에 개원한 동아시아신학교(EATS) 일본캠퍼스는 주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2년 과정의 인텐시브 프로그램을 제공

한다. 현재 정식학생 18명과 다수의 청강생이 재학 중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교회의 사역자들, TDIS의 교사 헌신자들, 선교헌신자들이 훈련받고 사역자로 준비하고 있다.

보드선교회의 설립 (Bridge Of Diaspora, 이하 보드선교회)

2024년 2월,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교회들은 200명의 해외선교사 파송을 위해 BOD를 설립했다. 보드선교회는 두 가지 다리 역할을 수행한다. 첫째, 해외에서 일본선교를 위해 들어오는 화교선교사들을 위한 다리가 되는 것이며, 둘째, 일본에서 해외로 나가고자 하는 선교사들을 위한 다리가 되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의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사들은 보드선교회가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적 계획을 이루는 데 쓰임 받기를 기도하고 있다.

예배당 헌당과 이양



2022. 10. 도쿄닛포리국제교회 예배당 헌당식

도쿄 닛포리 국제교회는 2023년에 닛포리 예배당 헌당식을 가졌다. 이 예배당은 코로나 말기에 선물처럼 주어진 공간이었다. 헌당을 마무리하면서 필자 부부는 도쿄에서의 제2기 사역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음을 깨달았다. 이곳의 양 무리들은 성장했고, 각 예배당에 현지인 목회자들이 세워져 모든 면에서 자립적인 교회로 자라나고 있었다. 교회가 없던 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학교가 없던 곳에 학교가 생겼다. 일본의 다른 지역들은 여전히 많은 필요가 있었지만 일꾼이 부족했다. 우리는 일꾼이 부족한 곳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말씀하셨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 이제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다시 꺾대를 향하여 출발해야 할 지점에 도착한 것이다(빌립보서 3:14). 결국 우리는 15년간의 도쿄 사역을 현지인에게 이양하기로 결정했다.

형제자매들로 구성된 청빙 위원회는 지혜롭고 분별력 있게 현지인 중에서 후임 목회자를 선정했다. 감사하게도 홋카이도 사역 때부터 함께해 온 형제 같은 사역자가 후임으로 선출되었다. 2025년 1월 5일, 교회설립 15주년을 맞아 이취임식을 진행했다.(자세한 내용-2025.1 기도편지).



2025 이취임식

Key 현지인에게 사역지 이양

선교사로서 사역을 개척하고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 현지인에게 사역을 이양하는 것은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나는 두 번의 이양을 경험했고, 지금도 세 번째 이양을 준비하고 있다. 첫 번째 이양은 삿포로 국제교회의 중국어 예배였다. 두 번째는 도쿄에서 15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도쿄 닛포리 국제교회를 이양했다. 선교사에게 이양은 사실 사역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미 시작된다. 그래서 교토에서 새롭게 시작한 교회개척은 시작부터 세 번째 이양을 염두에 두고 있다.

Key 외국인이 현지어로 설교하기(참고링크)

21년간 두 번의 안식년을 제외하고 거의 매주 중국어로 설교했다. 일본어 통역이 필요했기 때문에 매주 토요일까지는 중국어 원고를 작성해 통역자에게 보내야 했다. 20여 년 중국어로 설교원고를 쓰고 설교하면서 외국인으로서의 한계를 여러 번 경험했다. 한번은 중국어 발음을 많이 틀리고 스스로 평가했을 때 형편없는 중국어 설교를 했다고 생각해 매우 낙심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그날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나타났다. 이를 통해 외국인이 현지어로 설교할 때는 언어 능력을 넘어서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다는 것을 경험했다. 외국인으로서 현지어로 현지인들을 돕고 설교할 때는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하다. 첫째, 성령님은 선교사가 외우지 않은 현지어 단어를 쓰실 수 없으므로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둘째, 성령님은 선교사가 외운 현지어 단어를 넘어서는 메시지를 전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선교사에게는 현지어를 꾸준히 공부하는 열심과 부족한 언어능력에 매이지 않는 담대함,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다.

제4기 사역(2025-현재, Kyoto)



교토의 식사모임

2025년 1월 10일, 우리는 도쿄에서 교토로 이사했다. 제4기 사역은 교토를 중심으로 한 칸사이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되었다. 지난 21년간 선교지에서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 준 두 아이가 무사히 장성하여 대학에 진학했기에, 이제는 아내와 필자 두 사람만 단출하게 교토로 이사하게 되었다. 교토에 정착한 후, 우리는 이 지역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교토와 인근 지역의 교회들을 탐방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를 찾고자 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여러 교회,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조금씩 드러났다. 기도와 대화, 연구를 통해 흠어진 조각들을 연결하면서 우리의 사역 방향이 희미하게나마 그려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교토가 학생들이 많은 도시라는 점에 주목했다. 이곳에는 약 6,000여 명의 중국인 유학생들이 있지만, 이들을 위한 선교 활동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학생 전도와 훈련을 위한 성경공부 모임을 시작하고, 학교 근처에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려 한다. 이 유학생들에게는 무엇보다 그들을 안아주고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가 필요하다.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찾아가 주는 사람, 그리고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가정 같은 공간이 필요한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동안 이 일에 마음을 다하고자 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한다.



교토의 첫 예배

Key 새로운 사역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결정

선교사로서 많은 결정의 순간들이 있었다. 특히 사역지 결정은 가장 중대한 일 중 하나다. 사역자로서 "사역지를 어디로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잘못 결정하면 어떡하지?" 하는 생각들이 있었다. 우리는 2002년 사이판에서 디아스포라 중국인 선교를 시작해, 2004년 홋카이도 삿포로, 2009년 도쿄, 그리고 2025년 현재는 교토에서 사역하고 있다.

우리만의 원칙을 간단히 말하자면, 기본적으로 충분한 기도와 신중한 생각, 그리고 연구를 한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기본 원칙이 있다. 바로 '필요'다. "하나님의 필요와 사람들의 필요가 어디에 있는가?"가 핵심이다. "중국인들이 있는 곳 중에서 우리 같은 선교사가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어느 곳이 더 사역을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어디가 실제로 문이 열리는가?" 이런 질문들이 사역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필요한 곳으로 흘러 들어가듯이 선교사는 우리를 더 필요로 하는 곳으로 흘러 들어 가야 한다. 이 흘러가는 과정 속에서 성령님이 많은 사인들을 보여 주시곤 한다. 무엇보다 일단 사역지가 최종 결정되면 그 어디가 되었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역사하셨음을 믿기에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믿고 주어진 곳에서 마음을 다했다. 그러다보면 나를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갈수록 더욱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

결론

이 글에서 필자는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일본에서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의 '시작에서부터 현지인 이양까지'의 전 과정을 두 번 경험하면서, 디아스포라 사역이 가진 몇 가지 특징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중 가장 명확한 것은 디아스포라가 가진 '선교 DNA'이다. 디아스포라는 그 태생, 성장, 확산에 있어 선교적인 DNA가 깊이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디아스포라 사역은 처음부터 선교적이어야 한다. 선교적인 마인드로 접근하고, 선교적으로 결정하고 실행할 때 디아스포라 안에 잠재된 선교적 DNA가 스스로 작동하게 된다. 우리는 찾아온 디아스포라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이들이 선교적인 생명으로, 선교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선교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된다.

필자가 경험한 중국에서의 4년간 디아스포라 유학생 생활, 사이판 화인교회에서의 1년간 디아스포라 사역, 그리고 지난 21년간의 일본 디아스포라 중국인 사역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선교'였다. 한마디로 디아스포라 사역은 선교의 사역이고, 선교에 의한 사역이며, 선교를 위한 사역이다.

현재 전 세계에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사람이 3억 명에 이른다. 일본의 디아스포라 중국인은 120만 명에 달한다. 이들은 우리 주 예수님처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자신의 고국과 고향을 떠나 나그네가 된 사람들이다. 이들이 고국과 고향을 떠나 이동할 때, 그들 안에는 이미 선교적 DNA가 새겨져 있다.

‘선교는 하나님의 속성’(David Bosch)이며, ‘우리 하나님은 선교의 하나님’(John Stott)이다. 선교적 DNA를 가진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하는 사역은 하나님의 선교적 속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다. 지금 고향과 고국을 떠나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가 섬기는 디아스포라들이, 이런 나그네의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임을 인식하고 함께 섬기길 기도한다. 이를 통해 선교에 부르시는 디아스포라의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기도한다.

2025. 8.6. Written by Soomin Park